

시편 68편 묵상 (2) -

시온 산에서 하늘 성소에 이른 성도들은 만국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 개역 | 사역 |
|--|---|
| <p>19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p> <p>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p> <p>21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p> <p>2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p> <p>23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 라 하시도다</p> <p>24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 라</p> <p>25 소고 치는 동녀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p> <p>26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p> <p>27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p> <p>28 네 하나님이 네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 서</p> <p>29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p> <p>30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 짚으시고 은 조각을 발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흠으셨도다</p> <p>31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 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 다</p> <p>32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셀라)</p> <p>33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p> <p>34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p> <p>35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 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p> | <p>19 주님을 찬송하여라. 날마다 우리의 집을 저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셀라)</p> <p>20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에서 벗어남이 여호와 주님께 있습니다.</p> <p>21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부술 것입니다.</p> <p>22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산에서 데려오리라. 바다 깊은 곳에서도 데려오리라.</p> <p>23 네 발은 그들의 피를 휘젓고 다니고 네 개들은 원수들에게서 제 몫을 차지하도록 하겠다.”</p> <p>24 하나님, 주님께서 행차하심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차하심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p> <p>25 노래하는 이들이 앞서고 연주하는 이들이 뒤따르니, 그 가운데에서는 처녀들이 소고를 칩니다.</p> <p>26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스라엘의 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p> <p>27 거기에는 작은 지파 베냐민이 그들을 다스리고 유다의 방백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이 함께합니다.</p> <p>28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명하여 주셨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 오.</p> <p>29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왕들이 주님께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p> <p>30 갈대밭에 있는 짐승들을, 송아지와 같은 백성들 사이에 있는 수소들의 무리를 꾸짖어 주 십시오.</p> <p>은 조각을 밟으시는 주님께서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흠어 주십시오.</p> <p>31 이집트에서 사절단이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 손을 펼 것입니다.</p> <p>32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셀라)</p> <p>33 하늘, 곧 태초부터 있는 하늘을 타신 분께. 보라, 그분이 말씀하시니 능력의 소리로구나.</p> <p>34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어라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p> <p>35 성소에 계신 하나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라.</p> |

68편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시온 산으로 인도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시내 산에서 시온 산까지’라는 말로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셔서 ‘높은 곳’ 곧 시온에 오르셨는가를 앞부분에서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 외로운 이와 갇힌 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산의 산들처럼 높고 물이 풍부한 곳을 택하지 않고 시온 산처럼 작고 볼품 없는 산을 택하신 데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산의 산들을 지나서 시온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시온 산으로 오르실 때에 바산의 높은 산들처럼 교만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이끌고 시온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시온 산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 만민 위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바산의 산들처럼 교만한 세력을 꺾고 높은 곳에 오르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계속하여 세상의 교만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시고 주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집트와 같이 교만한 나라들이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기를 구합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과 함께 주님께 대한 찬송이 더 깊고 풍부하여집니다. 시온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하늘 성소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1. 우리의 집을 저 주시는 하나님 (19-23절)

- ¹⁹ **주님**을 찬송하여라.
 날마다 우리의 집을 저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셀라)
- ²⁰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에서 벗어남이 여호와 **주님**께 있습니다.
- ²¹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부술 것입니다.
- ²²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산에서 데려오리라.
 바다 깊은 곳에서도 데려오리라.
- ²³ 네 발은 그들의 피를 휘젓고 다니고
 네 개들은 원수들에게서 제 뿔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시고는 ‘높은 곳’ 곧 시온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다른 민족들에게서 조공을 받으셨습니다.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저항하는 원수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옛 시인은 이어서 노래하였습니다.

1) 우리의 집을 짊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시인은 ‘날마다 우리 집을 저 주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하고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집을 짊어져 주신다는 말씀은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어려운 짐이나 생활의 문제를 그분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시는 데서 실제적으로 맛보게 되고, 그러한 고백은 곧 찬송이 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2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에서

벗어남이 여호와 주님께 있다.’ 시인이 ‘우리의 짐’과 구원을 연결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짐’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말이나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논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신인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반해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옮겨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아굽 집이며,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사 46:1-4)

벨이나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인데, 그 우상들을 짐승이나 가축이 떠메고 다닙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우상은 짐승이 들고 다녀야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을 안아서 인도하고 구원하여 내시는 분입니다. 태어날 때에 안아 주고 품어 주신 것뿐 아니라, 노년이 되어 백발이 성성하게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아서 품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들어 주어야 하는 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그들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 주십니다.

이사야 63:9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같은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가리켜 시인은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선한 목자께서 그 양을 안고 가시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드신다’, 혹은 ‘지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의미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매일 맛보게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난다’ 하는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생생한 말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사망’이라는 이름의 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모트’라는 죽음의 신과 ‘바알’이라는 생명의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나안인들은 비가 내리지 않던 건기를 죽음의 신인 ‘모트’가 지배하는 때로 보았고, 이 ‘모트’를 물리치는 신이 비와 우레의 신인 ‘바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죽음의 신인 모트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는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전에서 바알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하면, 바알이 아세라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 땅에 비를 내려 죽음의 신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이 자신들을 사망에서 건져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 시편의 19-20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흐르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천둥지기를 경작하는 농민의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활의 문제에 대한 짐을 짊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공부한 8-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구름과 우레로 임재하신 일을 생각하고서 ‘하늘도 단비를 내렸다’ 하고 말하였고, 주님께서 단비를 흠족히 주셔서 주님의 메마른 기업을 회복해 주셨다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산 성소에 오르신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시인은 우리를 ‘모트’ 곧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분은 우상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져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두 내려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참조 신 33:27-28). 따라서 경건한 시인은 구원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였습니다.

2)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시인의 표현을 그 당시의 배경에서 이해하였는데, 구원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은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더부룩한 정수리를 부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대의 용사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긴 머리카락을 붙잡고 원수의 머리를 쳐서 부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올라오셨어도 그분께 순복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산과 같이 높은 산에 있는 자라도, 바다 깊은 곳에 숨은 자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참조 암 9:2-3).

3) 하나님의 치심과 사람의 침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너의 발’과 ‘너의 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부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발은 그 피를 휘젓고 다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수족이 되어서 원수의 머리를 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발이 피에 잠길 정도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치시는 그 일에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시편 110편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머리를 치시면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주님의 백성도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신령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개들이 와서 원수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을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하였을 뿐 아니라 포도원을 탐내어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가 아합과 이세벨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을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개들이 와서 그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왕상 14:11; 21:19; 22:38; 왕하 9:35-3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자들도 심판하시되 그들이 죽은 다음에도 매장되지 못한 채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 성소로 행차하시는 하나님과 백성의 찬송 (24-27절)

²⁴ 하나님, 주님께서 행차하심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차하심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²⁵ 노래하는 이들이 앞서고 연주하는 이들이 뒤따르니,

- 그 가운데에서는 처녀들이 소고를 칩니다.
²⁶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스라엘의 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²⁷ 거기에는 작은 지파 베나민이 그들을 다스리고
 유다의 방백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거두신 사실을 말한 후에, 시인은 이어서 승리자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신성한 전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홀로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오르시면 노래하는 사람들과 연주하는 사람들이 앞서거나 뒤따르면서 찬송하고, 젊은 여인들은 소고를 치면서 노래합니다. 홍해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미리암과 다른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한 모습과도 같습니다(출 15:20). 구원을 맞본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고백한 사람들, 스스로를 고아와 과부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중 가운데 함께 서서 ‘이스라엘의 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개역한글에서는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번역어도 좋지만 68편의 문맥에서는 ‘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알에 대한 변증의 성격이 있고, 구름을 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먹을 것을 주시며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시인이 앞에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찬송하는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면서 베나민과 유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들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두 지파씩을 골라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대표하였습니다. 남쪽의 대표로 뽑힌 베나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납달리와 스불론을 든 것은, 시편 68편이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드보라 때에 이 지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일을 기억하면서 시인이 두 지파를 언급하였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5:18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하였습니다. 혹은 지리적으로 단순히 남쪽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남쪽에 있는 베나민과 유다, 그리고 북쪽 경계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지목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 열방의 돌아움을 위한 기도 (28-31절)

- ²⁸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명하여 주셨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²⁹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왕들이 주님께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³⁰ 갈대밭에 있는 짐승들을,
 송아지와 같은 백성들 사이에 있는 수소들의 무리를 꾸짖어 주십시오.
 은 조각을 밟으시는 주님께서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흠어 주십시오.
³¹ 이집트에서 사절단이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 손을 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은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마

음이 넓어져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28절에서 시인은 ‘너의 하나님’을 말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하여서 번역하는 역본들이 있지만, 원문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기를 구한다’고 먼저 말한 후에, 이어서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또 의미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시온에 올라와서 찬송하는 시인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구하였습니다. 바산의 높은 산을 자랑하는 가나안 원주민뿐 아니라 나일 강의 위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집트의 왕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구하였습니다. ‘갈대밭에 있는 짐승’이라고 번역한 말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인은 나일 강에 갈대밭이 있고 거기에 악어와 같은 큰 짐승이 있는 것을 묘사하는데, 에스겔 29:3이나 32:2과 같은 구절을 보면 이집트를 그러한 동물로 표현하였습니다. 시인은 송아지로 표현된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왕 노릇하는 이집트와 같은 나라가 책망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더 나아가서 저 멀리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도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게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에 있고 그 당시로서는 세상 끝에 있는 나라인데, 시인은 거기에 있는 자들도 조공을 바칠 뿐 아니라 주님께 나아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참조: 습 3:9-10).

30절의 뒷부분은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은 조각을 밟으시는 주님께서’로 옮길 수도 있고, ‘그들이 은 조각을 들고 와서 복종할 때까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은 조각을 밟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의 철저한 승리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데, ‘그들이 은 조각을 들고 와서 발 앞에 얹드린다’고 해도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데, 그 승리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흠어 버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시인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 ‘싸움을 즐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교만할 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움을 즐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결국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께 조공을 바치고 손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4. 성소에 계신 주님을 찬송함 (32-35절)

³²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셀라)

³³ 하늘, 곧 태초부터 있는 하늘을 타신 분께.

보라, 그분이 말씀하시니 **능력**의 소리로구나.

³⁴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어라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³⁵ 성소에 계신 하나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종으로 부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면, 땅의 왕

국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8편의 시인도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모두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소리’를 듣고서 그 ‘능력’을 주님께 돌려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네 번 사용되면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교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능력의 소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우리를 상기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찬송을 받으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8편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시인의 역사관을 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뒤로하고 시온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망하였습니다. ‘시내 산에서 시온 산까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였고,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소망하였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전에 올라온 시인은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온 산에서 하늘 성소에 오른 자들이 모든 민족과 함께 주님을 찬송할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5.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68편에서는 하나님을 ‘구름을 타신 분’으로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짙은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영광의 구름’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막과 성전의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인도하신 일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켰고, 부활하신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하여서 68편을 읽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십자가로써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거기에서 우리의 태도와 사명도 발견합니다.

1)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높은 곳’인 시온에 올라가신 일을 노래한 시편 68편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전쟁과 승리에 대하여 예언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3-14)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 12:32-33)

요한복음 3:14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는 일’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3과 붙여서 읽으면 그 ‘들리시는 일’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일’과도 관련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2:32-33을 읽으면 주님께서 ‘들린다’는 말을 이중적으로 사용하신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심으로써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일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뒤이어 이 말씀이 그분의 ‘죽음’을 암시하신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로 ‘들리는’ 것이 곧 하늘로 ‘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로써 신령한 전쟁을 하시고는 하늘에 오르셔서 만국 백성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수행하실 것을 매우 인상적인 방식으로 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늘로 들리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그분께로 인도하신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읽게 됩니다. 십자가에 들리셨기에 또한 하늘로 들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거기에서 사도들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 하고 선포하였을 때에 삼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약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들려 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2) 말씀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심

68편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를 치시되 자기 백성을 사용하여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8에서 시편 68:18을 인용하였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8-10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4:11에서 가르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로잡아 선물로 주고 가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혹은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주님께서는 포로로 잡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사로잡아서 선물로 주신 좋은 예는 지금 그 사실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큰 열심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포로로 잡으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사울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사울은 “주여, 뉘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행 9:5) 하고 말씀하시자 사울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사울을 포로로 잡으셨을 뿐 아니라 그

를 사도로 세워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8-9에서는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고 하고, 그다음 절에서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다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시는 일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서로 긴밀하게 직조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목적을 위하여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3) 성도의 확신과 믿음의 봉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68편을 읽을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을 처음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로 보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생활의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고 우상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맞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비와 이슬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바알을 찾아갔지만, 시온에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은 구름을 타신 여호와를 노래하였고, 그분이 생활의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신다고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생활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편을 부를 때에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인이 승리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가난한 심정으로 이 시편을 불렀다는 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전에 이른 사람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기 마련입니다. 것처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고난으로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즐거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릇된 승리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대하였던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 시인은 자기를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자와 포로 된 자로 놓고서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난함을 바르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나아올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고, 마게도나 교인들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넘치도록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고후 8:5). 우리와 같은 자들을 역사의 중심인 교회에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은교회, 2005년 5월 18일; 신학교 경건회, 2011년 5월 31일)